

‘역대 최대 외부 자원’ 합평 미래 비전 실현 ‘청신호’

군, 올해 중앙·도 공모사업 22건 등 1538억 규모 선정

상습 침수지역 정비·지역특화·쌀 유통 활성화 등 추진

합평군이 올해 중앙부처와 전남도 공모 사업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자원 확보에 성공. 지역 발전 비전 사업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 공모사업에서 총 22건의 사업에 선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1538억2200만원을 확보했다.

29일 합평군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세부적으로 국비 749억2400만원, 도비 102억5900만원으로, 단일 연도 기준 군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는 연중 추진되는 공모사업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등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이어온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앙부처·전남도 등과 사전 협의, 전문가 컨설팅, 현장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준비가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대표적인 대형 국비 사업으로, 대전면 일원 상습 침수지역에 총사업비 468억원을 투입해 하천 정비·배수펌프장 설치·우수관로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 재해 위험 감소와 주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특화 재생업 250억원 △

기초생활기초조성사업 74억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163억원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114억원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98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고르게 선정돼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단순한 외부 예산 확보를 넘어 합평의 미래 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 것이다”며 “각 사업이 조기에 착수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공직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평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더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해 합평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나주시립국악단은 최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교류음악회 ‘천년의 울림, 나주를 노래하다’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립국악단, ‘천년 나주의 소리’ 감동 전했다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교류음악회·전통 국악 가치 공유

나주시립국악단이 전통 국악의 본향 나주가 지닌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수도권 무대에 올려 지역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서초구민과 수도권 향우들을 초청해 교류음악회 ‘천년의 울림, 나주를 노래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전라도 전통음악의 뿌리인 나주의 역사와 삶을 국악으로 풀어낸 교

류 무대로, 나주가 간직한 천년의 시간을 소리로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대에는 나주 고유의 전통 음악인 나주삼현육각을 비롯해 영산강 유역의 정서를 담은 ‘영산강치녀’, 나주의 대표 문화유산인 읍성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창작곡 ‘나주읍성유람기’ 등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레퍼토리가 다채롭게 울렸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에는 나주시립합창

단이 협연으로 참여해 국악과 합창이 어우러진 풍성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연주회를 넘어 지역 문화유산과 공동체의 기억을 예술로 공유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획됐으며 나주시립국악단 특유의 탄탄한 연주력과 현대적 감각을 더한 무대 연출로 국악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선사했다.

윤종호 나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작품들을 통해 나주가 간직한 천년의 시간을 소리로 전하고자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교류음악회는 나주의 전통 국악이 지닌 역사성과 예술적 가치를 수도권 시민들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공연을 통해 나주시립국악단의 예술성과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립국악단은 지역 대표 예술 단체로서 전통 국악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 창작 국악과 교류 공연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순천, 출산·보육정책 강화...출생률 ‘쑥’

1385명 전년 대비 5.5% 증가...저출생 위기대응 출생수당·장난감 대여소 등 아이키우기 도시 입증

순천시 올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출산·보육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위상을 굳건히 했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출생아 수(올해 11월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5.5% (72명) 증가한 1385명이다.

올해 대폭 확대 강화한 출산장려 정책 중 하나인 출생수당은 1월부터 시행돼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대해 18개월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영유아의 비중이 높은 신대지구에는 신대아이사랑 출산 육아용품·장난감 대여소를 지난 8월부터 개소해 초기 육아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 야간이나 긴급상황에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했다.

보육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농촌 등 최소 필요 지역을 2배(6개소)로 늘려 운영비를 지원하고, 특히 농촌 지역은 운전원 인건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초기 건강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문인력이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와 부모가 생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정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펼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미래 도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곡성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소득작목으로 만감류를 육성하기 위해 재배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곡성, 미래 소득작목 ‘만감류’ 맞춤형 컨설팅 실시

천혜향·레드향 재배 요령 등

곡성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래 소득작목으로 만감류를 육성하기 위해 재배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기술 지원을 강화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고품질 만감류 후반기 관리요령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 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을 추진한 데 이어, 수확기를 앞두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갈굴 마이스터를 초청해 진행했다. 육과농협 본점에서 만감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론 강의가 열렸으며, 육과 지역의 기온·강우 특성을 반영한 온도 관리와 물 관리, 토양 및 시비 관리, 병해충 관리 등 기본 재배기술을 비롯해 천혜향·레드향 재배관리 요령과 10월 이후 만감류 생육 후반기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과원 여건과 생육 상태에 맞춘 현장 컨설팅도 추진했다.

특히 수확을 앞둔 시점에 맞춰 과실 착색 상태와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수확기에 맞는 물 관리와 환경 관리 등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지도에 집중했다.

현장 컨설팅 결과, 현재 생육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레드향은 1월 초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천혜향 수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확 시기에 맞춘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이 현장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곡성군은 육과농협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만감류 재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천혜향·레드향·카라향 중심의 만감류 특화단지 3.5ha를 조성했다. 곡성=김유성 기자 thnews1@gwangnam.co.kr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흥,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맞춤형 물가안정 노력 결실

고흥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전국 시군 중 상위 5%에 해당하며 주어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역량이 정부 평가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고품가 상향 속에서도 쓰레기봉투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격 동결하고, 읍면 대상 자체

물가 관리 평가를 실시했다.

명절과 축제, 휴가철 등 시기별 맞춤형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휴가철 기간 해수욕장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5개 해수욕장 상점을 전수 점검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 점도 주목을 받았다.

군은 이번 기회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내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와 지역 소비 진작 등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성과는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고품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군민들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강진, 논콩 등 전략작물직불금 45억 지급

타 작물 재배 확대...군비 14억 추가 지원

강진군은 올해 3405농가에 45억원 규모의 전략작물직불금을 타작물 재배농가에 지급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지급률 증진과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귀리, 밀, 보리 등 동계작물과 두류, 가루쌀, 옥수수 등 하계작물로 구분해 지급한다.

지급 면적은 총 4687ha로 동계작물 3649ha, 하계작물 1038ha이며, 지급 단가는 1ha당 동계작물은 50만~100만원, 하계작물은 100만~500만원을 국비로 지급한다.

동계 밀 또는 조식료와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으로 재배한 농가에는 1ha당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

급한다.

군은 동계작물은 지난 2월부터 4월 중순, 하계작물은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가와 농업인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고 지난달까지 농관원 주관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해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논콩 등 타작물 확대를 위해 군 자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논콩 재배농가에 군비로 1ha당 이모작 50만원, 단작 150만원의 장려금과 보조율 95%의 콩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콩 전문생산단지에서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등 총 14억3000만원을 투입해 논콩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